예보는 최대 400㎜… 실상은 1000㎜ 물폭탄

제9호 태풍 '마이삭' 한라산에 엄청난 비 퍼부어
제주 최근접 때 강도 '강' 유지하며 기록적 강풍도

제9호 태풍 '마이삭'은 2일 오후 7~8시 서귀포 동남동쪽 130㎞ 해상을 통과해 내륙으로 북상하며 한라산에 1000㎜가 넘는 물폭탄을 뿌렸다. 기상청이 산간을 중심으로 최대 400㎜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한 예보와 실제 상황의 괴리가 크다. 또 기상청은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든 2일 오전까지도 오후 3시쯤엔 강도가 '매우 강'에서 '강'으로 약해지고, 제주에 근접하는 시점에는 순간최대풍속 초속 40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지만 태풍은 제주 해상을 지나 오후 11시 부산으로 근접하는 시점까지도 초속 45m의 '매우 강' 상태를 유지했다.

3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은 제주 동쪽 해상에 근접해 통과하며 2~3일 누적강수량이 한라산 남벽 1037.5㎜를 기록했다. 영실 963.5㎜, 윗세오름에는 958.0㎜가 내렸다. 한라산남벽에는 2일 하룻동안 1004㎜의 비가 내렸는데, 시간당 최다강수량은 135.5㎜로 기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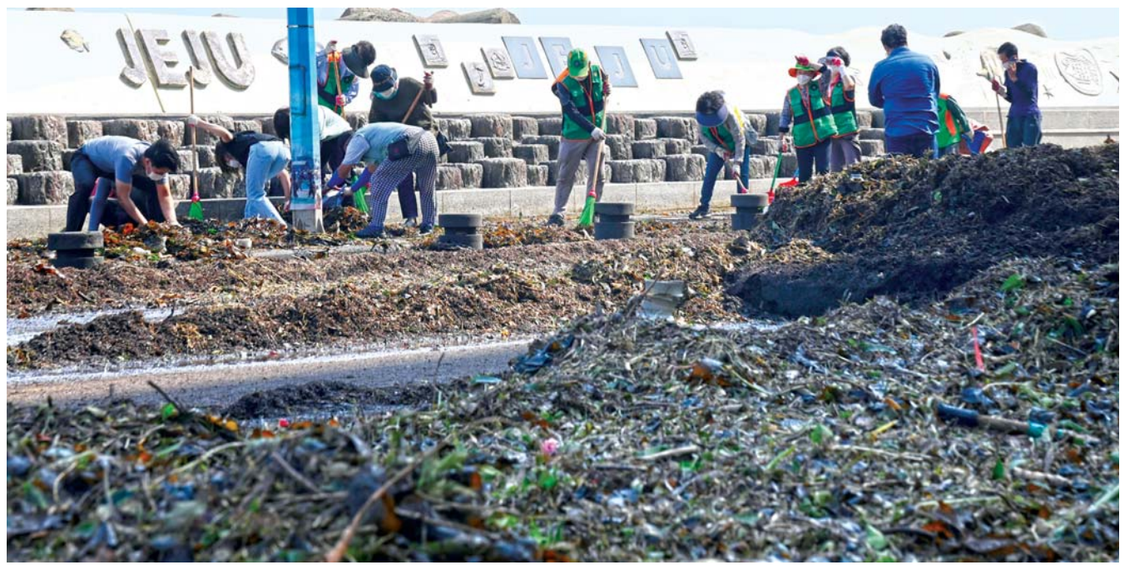
해안에도 폭우가 쏟아져 2~3일 누적강수량은 서귀포시 신례 463.5㎜, 제주시 산천단 387.5㎜, 새별오름 384.0㎜, 금악 373.5㎜, 서귀포시 중문 326.0㎜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다강수량은 중문 83.5㎜, 선흘 75.5㎜, 신례 74.5㎜다.

태풍이 제주 부근 해상을 통과하는 동안 고산에선 순간최대풍속 초속 49.2m의 강풍이 불면서 역대 6위를 기록했다. 새별오름에는 44.7m, 성산 수산 41.0m, 마라도 40.0m, 제주 37.1m, 선흘 36.1m의 강풍이 불었다.

역대 순간최대풍속은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 때 고산과 제주에 각각 초속 60m를 기록했다. 이어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 때 고산 56.7m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 때 고산 56.5m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 때 고산에 52m 다음으로 센 강풍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한라산 등 산간에 1000㎜가 넘는 강수량과 제주 근접시점에 태풍 세기가 '매우 강'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태풍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때 중심기압이 945헥토파스칼(hPa) 상태를 유지했고, 제주가 태풍 반경안에 들면서 한라산 지형효과가 더해져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태풍이 휩쓸고 간 탑동해안도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강타하며 많은 피해를 가져온 가운데 3일 월파 피해를 입은 제주시 탑동해안도로에 관계자들이 나와 부유물을 치우며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마이삭'보다 더 강한 태풍 '하이선' 온다

기상청 "제주 6~7일 영향권… 최근접때도 '매우 강' 상태 유지"

6일 밤~7일 오전 최대고비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물러가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며 오는 6~7일 제주가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일 수 있지만 현재 예상진로대로라면 제주 부근 해상에 북상할 때까지 '매우 강' 상태를 유지하며 마이삭보다 더 강력할 전망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6일 오후에서 7일 오전 사이에 제주 동쪽 인근 해상을 지나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65헥토파스칼(hPa), 강풍반경 340㎞, 최대풍속 초속 37m의 강도 '강' 태풍으로 서북서진중이다.

태풍은 북상하며 세력을 키워 4일 오후 3시에는 중심기압 935hPa, 강풍반경 440㎞, 초속 49m의 '매우 강'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다. 5일 오후 3시에는 강풍반경 520㎞, 최대풍속 초속 53m까지 몸집을 키운 후엔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겠지만 제주가 영향권에 들기 시작하는 6일 오후 3시에도 초속 51m의 '매우 강'을 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8호 태풍 바비나 9호 마이삭보다 더 위력이 센 태풍이다.

늦은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오는 태풍은 한여름 태풍보다 세력이 더 강력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보통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해 한여름에는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9월에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 온도가 가장 높고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의 길목이 열리게 돼 태풍이 오면 위력이 여름보다 커질 수 있다. 제주는 2003년 매미(9월 12일), 2007년 태풍 나리(9월 16일) 등 9월에 큰 영향을 받은 태풍이 적잖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변 기압계가 불안정해 하이선은 북상과정에서 진로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예상으로 제주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판결 환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잇따라 환영 입장이 나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7년, 2506일째 되는 날"이라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잇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하고,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 역시 법외노조 후속 조치 및 전교조 전임자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4일 금요일 음 7월 17일 (9물)

기상정보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0%	제 주	0%
0%	성 산	0%
0%	고 산	0%
0%	서귀포	0%

맑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23℃, 낮 최고 기온은 28~29℃의 분포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남부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해뜸 06:10 해짐 18:55	달뜸 20:18 달짐 07:41
물때	만조 11:44 00:00	간조 06:19 18:19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23/27℃
모레	흐리고 비	23/26℃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매우 높음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굶주린 도민 구한 김만덕의 고향은?

출생지 관련 연구결과 발표
김만덕기념관 "묘비문·족보 분석… 제주시 동지역 결론"

조선시대 사재를 털어 기아에 허덕인 제주도민을 구한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1739~1812년)의 고향이 제주시 동(洞)지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은 최근 '김만덕 출생지 관련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김만덕 가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부족해 출생지와 신분, 활약상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뤄졌다.

우선 조선시대 사료에는 김만덕을 '탐라 여인', '탐라의 기녀', '제주 기생', '고을의 기생', '제주의 관비', '탐라의 과부', '탐라에 사는 양가집 딸' 등으로 기록돼 구체적인 출신지가 나오지 않았다.

이어 문학작품에는 김만덕 출생지와 관련 2개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제주성안'이고, 다른 하나는 구좌읍 동복리 출생이라는 것이다. 제주성안이라고 나온 문학작품은 '김만덕전(김태능·1971년)', '구원의 여인상 김만덕(김봉옥·1981년)', '김만덕의 자선(양중해·1998년)' 등이다. 반면 동복리는 '제주기만덕(정비석·1977년)'에서 처음 제기돼 부영성(1986년), 김찬흡(2002년) 등의 작품에서 인용됐다.

이에 연구진은 사료와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실제 묘비문과 족보 등을 분석, 동복리가 '허구'이고 제주성안이 '김만덕의 출생지'라고 봤다. 동복리라고 처음 주장한 정비석의 작품의 경우 김만덕의 후손들을 직접 취재했다는 기록이 없고, 실제 묘비문과 족보와도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반면 김만덕 부친과 조부 묘비에 나타난 가계도, 족보(김해김씨 좌정승공파 후찬계), 후손 면담 등을 통해서는 김만덕의 출신지가 제주시 동지역(일도동·이도동·건입동)으로 기록돼 있었다.

김만덕기념관 관계자는 "그동안 김만덕 출생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지만, 사료와 금석문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제주성 안을 출생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집직종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